

역행운동의 조건

그 사람이었다. 눈을 마주치기도 불편한, 그런, 어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 이렇게까지 자신을 신경 쓰이게 만드는 사람은 요 근래 처음이었다. 그녀는 수현의 독주회 매니지먼트를 맡은 기획사의 인턴이었다. 본업은 따로 있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단기 근무 중이라고 하던데. 치맛자락을 요란하게 휘날리며 수현에게 다가온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인사를 건넸다.

“저번에는 제가 너무 예민했죠. 너무 마음 안 쓰셔도 돼요. 정말 아끼는 물건이라…….”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수현은 일주일 전 미팅에서, 그녀의 회중시계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물론 고의는 아니었다. 요즘 시대에 회중시계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나 싶어 테이블에 놓인 시계를 무턱대고 손으로

잡었는데 기어이 떨어뜨리고 만 것이다. 그녀는 우수에 가득찬 눈으로 당황한 수현을 바라보더니만 울음을 터뜨리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사과를 해야하긴 하겠는데, 막상 마주치려니 두렵고, 이 상황을 외면하고만 싶었던 수현에게, 그녀는 고맙게도 먼저 찾아와주었고, 자신의 예민함에 대해 사과하였다. 새 시계를 사주겠다는 수현에게 그녀는, 자신은 시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새 시계는 의미 없다며 홀연히 제 갈 길을 갔다.

-

오늘도 같은 꿈이었다. 잠에서 깬 후, 가장 처음 떠오르는 생각 역시 같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되갚아 줄 수 있을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가방 앞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물건’이 잘 있는지 확인해주면 완벽하다. 일상이 되어버린 일들이었다.

제이는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연결하여 재생버튼을 눌렀다. 하이퍼워치가 대중화된지도, 거추장스러운 연결 장치 없이도 뇌파를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발표된지도 한참이었지만 제이는 구태여 이 방법을 고집했다. 열은 미소를 띤 제이의 귀로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들어갔고, 제이는 전주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곡명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지수현이 연주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이었다. 영상 파일은 아니었지만 앙 다문 입술, 지그시 감은 눈, 바이올린을 켜는 수현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다음으로 재생된 곡은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이었다. 19년 전 수현의 독주회에서 연주되었던 곡이다. 왜인지 이 곡만 들으면 마음 한 편이 아렸다. 2021년 7월, 제이가 태어났을 즈음에 연주된 곡이었기에, 엄마에 대한 기억의 향수를 진하게 불러 일으켰다.

단 한 번이라도, 수현의 연주를 눈 앞에서 보는 것.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대한 상상회로를 매일같이 가동시키는 일은 하루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제이는 이 곳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211호는 즉시 (A)동 휴게실로 올 것.

오메가로부터 발송된 메시지가 하이퍼 위치 화면에 새겨졌다. 상담치료를 받는 일도 이제는 지긋지긋했다. 그딴 거 필요없으니 제발 날 좀 놓아달라고 백날 우겨보아도 윗선에서는 들은 척도 않았다. 오메가는 뇌파 진동 전도법이 탑재된 스마트폰, 하이퍼 위치, 타임 머신 DIWA를 최초로 개발한 연구소로, 제이는 어릴 적부터 이 곳 속사에서 머물고 있다. 과거 자신의 안전(眼前)을 산산조각 냈지만, 현재의 안전(安全)을 보장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메가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이 제이의 현실이다. 이 곳에서는 이름이 아닌, 각 사람에게 부여되는 번호가 곧 호칭이 되고, 이 점은 예외 없이 제이에게도 적용되었다.

-

그 여자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기억은 말끔히 삭제된 듯,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수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선 바이올린이 없었다. 연습용 전신 거울도, 보면대 위 악보 더미도, 메트로놈도 없었다. 수현은 급히 손을 뺐으나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낮선 공간의 딱딱한 공기뿐이었다. 수현은 찬찬히 기억을 되짚어보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어느 것도. 독주회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가 싶어 눈을 감았다 떴다. 변한 것 없이 그대로였다.

“손님 여러분의 오메가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날짜는 2040년 3월 10일, 현재 시각은 오후 2시입니다.”

꿈을 꾸고 있나 싶어 연신 볼을 꼬집어보았지만 고통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꿈은 아닌듯 했다. 어느새 수현의 손목에는 종잇장처럼 얇은 전자시계가 시곗줄도 없이 장착되어있었다. 검은 화면을 더블클릭하니 두 가지 메뉴얼이 나타났다. 호출, 그리고 환경설정. 우선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겠다 싶어 호출 버튼을 눌렀다. 이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수현이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왔다.

“코드넘버 i7, 호출하셨습니다.”

“아이 세븐? 그리고 이 곳은 어디죠?”

“i7, 손님께 부여된 코드넘버입니다. 오메가에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코드 넘버를 부여받게 되죠. 오메가의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듣자 하니 이 곳은 2040년, 즉 수현이 살던 시대에서 19년 후의 미래이며, 발명품에 대한 조연을 듣고자 <2020年 가장 영향력 있는 100人>에 선정된 인물들을 미래로 데려왔다는 것.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었지만 그 이외의 설명은 없었다. 2040년에도 위인은 분명 존재할 터인데, 왜 과거에 손을 뻗어야했나 이해할 수 없었을 뿐더러, 자신이 시간을 거슬러 미래에 왔다는 사실이 수현을 혼란스럽게 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임을 믿을 수 없었다.

“전 4달 뒤에 중요한 연주가 있어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죠. 갑시다.”

상투적인 미소가 어딘가 모르게 기분 나빴지만, 수현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긴 복도를 지나 ‘관계자 외 출입금지’ 문구가 붙어있는

철문을 통과했다. 철문 너머의 공간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검정색 타일이 깔린 바닥에는 홀로그램으로 시계의 판이 구현되어있었고, 수현은 시계판의 정 가운데에 위치한 발판 위로 올라섰다.

17 님, 반갑습니다. 도착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해주세요.

안내 음성이 나오고 수현의 눈 앞에 홀로그램 화면이 떠올랐다. 이곳은 2040년, 내가 가야할 곳은 2021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 이 곳의 날짜대로, 대충 3월 10일이라 하고, 시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후 7시. 설정이 완료되자 이름을 기입하라는 창이 떠올랐다.

잠시만, 내 이름이 뭐지?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보아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분명 매일 듣고 말하는 석 자인데, 머릿속에는 오직 방금 부여받은 코드 네임만이 맴돌 뿐이었다. 당혹스러웠다. 머릿속에 필수적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할 요소가 지워지자, 이내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기억을 삭제한 것이 타의인지 자의인지는 몰라도 이름에 대한 아무런 실마리도 떠오르지 않았다. 수현은 직원에게 질문했지만, 직원은 여전히 상투적인 미소를 띄우며 허무맹랑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손님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코드네임뿐입니다. 기억을 되찾으신 후에 호출해주신다면, 그때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오메가는 살인을 저질렀다. 그들은 엄마를 죽였고, 자신을 이 더러운 곳에서 살게 하였다. 처음 이 곳에 붙잡혀 왔을 땐 기를 쓰고 탈출하려 했다. 그들은 열 살 뿐이 되지 않은 아이의 목에 총칼을 들이밀었고, 반항하는 즉시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설득 방법을 달리 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은 확실하게 해줄테니, 이 곳에서 연구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열 다섯의 제이를 구슬렸다. 미래가 보장되면 뭐하나, 과거는 처참히 찢겨졌는데.

오늘도 상담사는 세뇌를 빙자한 위로의 말을 반복하여 건넸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널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앞으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널 지킬 것이라고. 이제 코웃음을 치기도 지쳤다. 더욱 격한 조소의 표현이 있다면 마음껏 퍼부어주고 싶었다.

연구원이었던 엄마의 피를 물려받은 제이 역시 과학자가 꿈이었다. 제이는 자신의 능력이 이로운 곳에만 사용되기를 바라기에, 자신이 절대 오메가에서 종사할 수 없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제이는, 엄마가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가치 또한 물려받은 것이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싶지만, 이 곳의 몰락을 지켜보기 전까지, 아니 오메가가 자신의 손에 의해 파멸되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만 했다. 설사 그 과정 속에서 목숨을 잃는다 해도.

초점 없는 눈으로 한 발 한 발을 내딛던 제이는, 옆에 사람이 오고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곧 어깨와 어깨가 부딪히며 제이가 메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죄송해요. 제가 잘 살피고 다녔어야 했는데.”

제이는 자신이 떨어뜨린 소지품들을 가방에 담은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남자의 멍한 표정에 당혹스러움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입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그가 오메가 사람이 아님은 확실했다. 연신 사과하며 물건을 주워주는 남자의 행동만 보아도 오메가에 처음 방문한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었다. 분명 처음 마주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제이는 분명 그를 본 적이 있었다. 익숙하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매우 흡사하게 생긴 인물이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였다. 그런데 ‘그 사람’일 리 없었다. 남자는, 제이가 떠올린 그 사람의 20년 전 모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혹시 누구신지 여쭙어도 될까요?”

남자는 대답하기 난처하다는 제이를 응시했다.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럼 이만.

“사실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오메가에 오게 되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저는 2021년에서 왔거든요…….”

기어이 실험에 성공했구나. 자그마한 시계 하나에서 시작된 타임머신을 마침내 이룩하고 실험까지 집행한 오메가의 행보는 종횡무진했다. 19년 전의 사람을 데려오다니. 저 이는 알까, 오메가의 검은 속내를. 제이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잡생각을 털어냈다. 그러고는 새로운 생각의 새순을 틔워냈다. 19년 전에서 온 사람이라면 제이가 생각한 그 사람이 오메가의 실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정말 간단에, 제이는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꼈다.

-

대체 누구길래 그 시계를 갖고 있는 걸까. 몇 날 며칠을 고뇌해도 연결 고리가 없었다. 심지어 미래로 오기 며칠 전, 수현의 실수로 인해

새겨지고 만 금까지 똑같았다. 뿐만 아니라 시계의 디자인도, 녹이 잔뜩 쓴 시곗줄도. 2021년, 회중시계를 소지한 그 여자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수현이었다. 하물며 2040년에서 같은 시계를 발견한 수현의 심리는 어땠겠는가. 각기 다른 차원에서 만난, 이름도 모르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i7 님, 반갑습니다.

30분 뒤 전략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B)동 회의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손목에서 진동이 울리자 수현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시계가 너무 가벼워 차고 있는 줄도 잊고 있었다. 2040년은 뭔가 다르긴 하구나, 수현은 새삼 다시 실감했다. 아직도 왜 굳이 2021년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를 않았다. 그리고 왜 하필 나야.

수현은 5세 때 이미 방송에서 바이올린 영재로 이름을 날린 바 있었다. 수현의 영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수현은 남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에 전 세계를 누비며 자신을 향한 러브콜에 응했다. 13세가 되기도 전에 수현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가히 세계 최고라 불리는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으며, 세계 5대 콩쿠르 중 하나인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에서 17세의 나이로 우승을 거머쥐며 최연소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기록했다. 수현은 약 10년만에 귀국한 한국에서의 독주회를 열게 되었고, 수현의 연주를 오래도록 그리워해온 팬들 덕에 티켓은 전석 매진되었다. 그 중요한

독주회가 약 4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해 불가한 사유로 2040년 미래에 오게 된 기상천외한 상황이 자신에게 닥친 것이다.

억울함을 잔뜩 품은 채 수현은 회의실로 향했다. 문제는, 막상 방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회의실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점. 직원을 호출하려던 찰나, 아까 마주쳤던 여자가 방문을 벌컥 열었다.

“어? 안녕하세요.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회중시계…….”

“안녕하세요. 아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저는 제이라고 불러…….”

서로를 향한 인사를 건넨 동시에 둘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다. 제이는 의아했다. 자신을 회중시계로 기억하다니. 혹시 이 시계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19년 전의 과거에서 온 -심지어 오메가와는 무관한-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 알고 있을리 없었다. 하지만 제이의 마음 속에는 수현이 자신을 이 지옥에서부터 꺼내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의 싹이 움텄다.

수현 또한 의아했다.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다니. 제이를 통해서라면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머릿속을 스쳤다. 제이는 다급하게 찰나의 정적을 깨며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제이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전략 회의 가시는 길이죠?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사람들이 회의에서 무어라고 떠들어대는지는 들을 필요 없어요. 오래 안 걸릴테니 그냥 앉아있다가만 나오세요, 아시겠죠? 저도 참석하기는 할건데, 회의가 끝나면 여기, B동 비상구 계단에서 만나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메가에서 제이가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이례적이었기에, 제이도 속사포처럼 말을 내뱉은 스스로가 다소 놀라웠다.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수현은 얼 빠진 표정으로 제이의 안내를 따라 금새 회의실에 도착했다.

미래로 급작스럽게 오게 된 100인의 얼굴을 한 자리에서 모두 보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 어떻게 100인 모두에게서 DIWA 탑승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다는 느낌밖에는 들지 않았다. 회의는 정말 별 내용 없었다. DIWA의 유경험자로서 기계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과, 새 발명품에 대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과학적 지식이 하나도 없는 자신에게 무슨 조언을 구한다는건지, 수현은 빨리 이 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복도 끝에 있는 계단으로 뛰어가니, 약속대로 제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아니에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절대로 누설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

제이는 수현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오메가에 대한 정보, 수현이 이 곳에 오게 된 이유, 그리고 오메가가 계획하고 있는 일까지. 전부 다 말이다.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모조리 내뱉어버린 것이다. 이 사실을 오메가가 알게 된다면 제이의 목숨에 위협이 가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웬지 이 사람이라면 신뢰가 갔다. 오히려 자신을 도울 것만 같은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

수현은 이름을 찾아냈다는 -엄밀히 말하자면 스스로 찾은 것은 아니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남은 일은 첫 날 들어갔던, 관계자 외 출입금지' 문구가 붙어있는 철문을 통과하면 나오는, DIWA를 탑승할 수 있는 방으로 가서 이름을 입력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이다. 자신이 타임머신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는 점, 합의 하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납치였다는 것 썬이야 억울하지도 않았다. 어서 빨리 2021년으로 돌아가 독주회 준비에 매진해야만 했다.

“지금 당장도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제이는 침묵으로 질문에 일관하였고, 수현은 곳곳이 말을 이어갔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할지 모르겠네요. 제 팬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싸인이라도…….”

잠자코 수현의 눈을 응시하고 있던 제이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근데 아까 저보고 회중시계라고 부르셨잖아요, 제이는 가방에서 그 물건을 꺼내며 수현에게 보였다.

“이거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눈 앞으로 다가온 예상치도 못 했던 물건에, 수현은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앞에 서있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저 숫기가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진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근데 제이 씨는 어떻게 이걸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에요. 수 년간 이 감옥같은 곳에서 지내며, 마음 속 깊은 어딘가에만 담아두었던, 입술로는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말을 마침내 토해냈다. 차가운 두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내렸다. 역시나 이곳에 온 이후 처음 쏟은 울음이었다. 이 곳에서의 자신의 삶에 유일한 낙이 되어주는 존재 앞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응어리를 터뜨리다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 울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의 신념을 자의로 깨뜨리는 순간이었다.

수현은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난감했다. 대체 그 낯고 자그마한 회중시계에 얽혀있는 비밀이 무엇이기에. 저, 그럼 어머니는….

“죽었어요.”

-

제이의 엄마는 과학자였다. 어린 시절 그녀에게 닥친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은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고, 그녀는 급하게 떠나가버린 이를 추억하고 싶었다. 한 순간의 자신의 곁에서 사라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녀는 사무치게 그리운 얼굴을 다시 마주하기 위해, 기필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계를 발명하는 과학자가 되리라 다짐하였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과학을 전공하였고, 지난 날 다짐했던 바를 실현시키기 위해 시간의 역행운동에 대해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 마침내 그녀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남긴 물건인, 회중시계 안에 타임머신을 설계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나 유능했던 한 과학자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은 그녀의 대학 동기였다. 연구소 설립을 앞두고 있었던 그는, 이 능력있는 젊은 과학자에게 협업을 요구했다. 그녀는 단칼에 제안을 거절했지만, 요구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끝내 그녀를 울아매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확고했다. 늘 단호한 태도로 그 끈질긴 집착의 끈을 끊어내려했다.

그녀가 타임머신을 개발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냥 어머니를 한 번 더 보고싶었던 것이다. 그게 전부였다. 타임머신이 보급화되는 것은 절대 원치 않았다. 과거와 미래가 뒤바뀌며 일어나는 혼돈이나, 타임머신을 이용하여 개인의 욕심을 충족하려는 사례들을 우려해 철저히 개인의 것으로만 남겨두고자 했다.

결론적으로는, 제이의 엄마가 소신을 밝히자 그녀를 죽여버리고 기술을 겁탈한 것. 회중시계를 뺏아서 말이다. 그리고 제이의 엄마를 죽인 자는 바로, 현재 오메가의 대표라는 사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다. 오메가에서 살고 있는 제이를 두고도 말이다.

“엄마, 엄마!”

자신의 부름에 대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던 유일한 날. 그 기억은 아직까지도 머릿속을 마구 헤집고다니며 제이를 괴롭혔다.

-

더욱 난감해졌다. 자신 앞의 소녀는 계단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은 채 울고있었다. 한 번 터진 독에서 터져나온 물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소리 없는 흐느낌만이 고요한 이 공간을 가득 메운 목하의 상황에, 수현은 제이를 위로할 어떠한 말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아니, 생각해낼 수조차 없었다. 수현은 제이의 곁에 앉아 그녀를 향해 팔을 뻗었다. 수현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였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제이가 수현을 지그시 밀어냈다.

“괜찮으세요? 더 울어도 되는데…….”

“우리 엄마는 과학자였어요. 당신이 타고 온 타임머신, 우리 엄마가 만든 거예요.”

제이는 메었던 목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다.

“이 회중시계는 우리 할머니가 엄마에게 남겨주신 유품이에요. 지금은 우리 엄마의 유품이 되었지만요. 할머니는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타임머신을 발명하는 과학자가 되어서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싶었대요. 그래서 엄마는 이 회중시계 안에 타임머신을 설계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오메가의 연구원이셨나요?”

수현이 고심 끝에 내뱉은 한 마디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연구원은 커녕, 오메가는 제이의 엄마를 죽이고 그녀가 발명한 기술을 빼앗아갔다.

“그런 사연이 있는 시계인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저, 제 주위에도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수현씨 주위에 과학자가 있나요? 그럼 과거의 우리 엄마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정확히 이 시계랑 일치하는 것 같아요?”

“과학자는 아니고 공연매니저예요. 이름이라도 알면 맞춰볼 수 있을텐데, 제가 그 분 이름을 몰라서요. 아, 그리고 제이씨 회중시계 가장자리에 작게 금이 가있던데, 그 흔적이 비슷해서 헛갈렸나 봐요.”

공연매니저라. 맞다. 엄마는 20대 때, 연구원으로서의 수입이 넉넉치 않아 공연계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들었다.

회중시계에 금이 가게 된 이유도, 당시 젊은 연주자와의 미팅에서 그의 실수로 인해서라고 했던가……. 단언컨대 엄마가 맞았다. 제이는 확신의 표시로 고개를 주억거렸다. 지수현이 엄마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이 사람을 잡아야 한다.

“잠시만요.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자주 입는 옷이라던지, 첫 인상이라던지. 뭐든 좋으니, 다 말해주세요, 제발.”

흥분에 겨운 제이의 목소리는 심히 떨리고 있었다. 늘 차분한 말투를 유지하려 노력하던 제이였으나,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목소리가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제가 그 분을 뵈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체계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사실 제가 그 분의 시계를 실수로

깨뜨렸거든요. 너무 죄송해서 새 시계를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자신은 시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새 시계는 의미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이도 어렸을 적 엄마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시계가 이렇게 꼬질꼬질한데, 그냥 새 것을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런 제이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시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새 시계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덧붙였다. 나중에 엄마가 죽으면, 이 시계를 이용해서 꼭 과거의 엄마를 보러 와줘. 마냥 어리기만 했던 제이는 ‘죽음’이라는 두 글자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었다. 엄마의 죽음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작은 손바닥에 시계를 쥐어주는 엄마를 바라보며, 10년 전의 제이는 눈물을 터뜨렸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실로 제이의 엄마는 제이를 남겨두고 떠나가버린 것이다.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곁으로.

-

회중시계에 얽힌 시간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 제이와 수현은 협업을 약속했다. 제이는 오메가의 몰락을 갈망했고, 수현은 자신이 살던 것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은 달랐지만, 둘을 연결해주는 고리는 하나였기에 서로를 돕기에 충분했다.

i7 님, 반갑습니다.

30분 뒤 전략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B)동 회의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수현의 손목에 진동이 느껴졌다. 하지만 제이의 손목에서는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성공이에요.”

제이는 오메가의 서버를 해킹하여 오메가에 납치되어 온 100인에게만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했고, 그들의 명부를 수현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이 제이가 수현에게 일조한 방식이었다. 수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이에게 부탁받은 바를 반드시 실천하기로 약속하였다.

2040년 3월 17일. 그 날은 수현이 원치 않았던 착륙을 하게 된 지 정확히 일주일 째 되는 날이었다. 때는 새벽 4시, 꼭두새벽부터 무슨 회의냐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적막을 깼다. 100명의 그림자를 담은 거대한 무언가가 일제히 회의실로 향했다. 100인의 얼굴을 한 자리에서 모두 보게 된 것은 오늘로써 두 번째였다. 수현은 아직 이들이 누구인지도,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다. 수현의 손에는 오직 이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만이 들려있었다. 수현이 입을 열자, 농도 짙은 불평의 소리에 원망과 억울함이 서서히 첨가되기 시작했다. 분노의 아우성이 널찍한 방을 가득 채웠다.

“빨리 가요,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다 들통 나는 수가 있어요.”

그들은 긴 복도를 지나, 첫 날 그들이 무의식 중에 지나쳐왔을 철문을 통과하였다. 철문 너머의 작은 방은 이내 사람들로 꽉 찼다. 검정 바닥 위로는 홀로그램 시계판이 빛났고, 그들은 차례로 발판 위로 올라서 자신의 이름을 입력했다. 곧 한 명씩, 한 명씩.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다. 아흔아홉번째 사람까지 무사히 옮겨진 것을 본 수현과 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방에 남은 사람은 단 둘이었다. 이제는 도약했던 시간을 다시 역행할 차례였다. 수현은 떨려오는 손을 감추려 각지를 꺾다. 숨을 고르며 발판 위로 올라서자, 전에는 보지 못했던 메뉴얼이 눈에 들어왔다.

“이 빨간 버튼은 뭐예요? 누르면 무슨 일이라도 생기나요?”

“리셋이요. 이 기계가 가진 기능들을 깔끔히 없애버리는 거죠. 수현씨까지 떠나면 저는 이 버튼을 누를 거예요. 이게 바로 오메가를 파멸로 이르게 하는 길이니깐요.”

그리고 이 버튼은 DIWA 뿐만이 아니라 오메가 전체를 폭발시키거든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애써 억누르려 급히 침을 삼켰다.

두렵지도 않은가? 제이의 얼굴은 지금까지 수현이 본 제이의 모습 중 가장 맑았다.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이의 열망 가득한 눈빛은, 제이가 얼마나 이 순간을 고대해왔는지를 다시금 수현에게 상기시켜주었다.

“제가 드린 부탁, 꼭 지켜주셔야 해요. 우리 엄마가 시간을 연구하지 못 하도록, 이 기계를 만드는 일만은 꼭 만류해주세요.”

“제이씨도 같이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중시계를 이용해서 꼭 과거의 자신을 보러 와달라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제이는 그럴 수 없었다. ‘J’라는 이름은 그녀의 본명이 아니다. ‘211호’라는 호칭에 익숙해져버린 탓에 제이는 이름을 잃어버렸고, 그녀의 이니셜 중 한 글자인 J는 이름에 대한 마지막 단서로 남게 되었다. 고로 제이는 과거의 엄마를 추억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슬프지만, 현실이었다.

수현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시간의 순행운동이 2040년으로 수현을 데려다준다면, 반드시 현재의 제이를 찾아오리라고.

지수현 님, **2021/03/10 PM 19:00** 로 설정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이내 우렁찬 군 나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오메가 직원들의 기상시간을 알리는 알람 소리였다. 납치된 사람들이 없어진 게 발각된다면, 이제 곧 이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 분명했다. 이제는 정말 가야했다.

지수현. 오랜만에 마주한 이름 석자가 낯설게 느껴질 겨를도 없이, 수현의 영과 육은 이미 이 곳을 떠나고 없었다. 이제 방에 남은 사람은 제이 혼자였다. 작은 방이 오늘따라 널찍하게 느껴졌고, 딱딱한 공기만이 그녀의 곁을 애워쌌다.

수현에게는 차마 일러주지 못 했던 -리셋 버튼을 누르는 일은 DIWA 뿐만이 아닌, 오메가 전체를 리셋시키는 방법이라는- 그 말. 오메가조차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 타임머신이 악용될 것을 우려한 제이의 어머니는, 자신이 발명한 기계에 폭발성을 탑재시켰으며, 이는 제이를 두고 떠난 미안함의 대가로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멍청한 새끼들, 어차피 이름도 모를텐데 뭐. 잡으면 바로 제압해서 기절 시키는 거다. 알겠지?”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이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내뿔었다. 이 얼마나 간절히 바라왔던 순간이었던가! 제이의 손가락은 홀로그램 화면 구석진 곳에 위치한 빨간 버튼을 가르키고 있었다. 아득한 곳에서 들려오던 소리의 거리감은 점점 줄어들어 철문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뭘 망설여, 빨리 끝내버리자.

‘RESET’을(를) 선택하셨습니다.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메뉴입니다.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주위는 그들의 아우성으로 소란해져갔고, 제이는 가만 눈을 감았다. 부정 당한 정체성을 다시금 부정하기 위해.

-

백 스테이지는 언제나 정신이 없었다. 공연이 끝나고 난 후는 특히나 더. 가뜩이나 부산한 와중에 매니저는 자신의 걸을 맴돌며 끊임없이 말을 건넸다.

“수현씨! 오늘 진짜 최고였어. 이것 좀 봐, 내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니까? 자, 여기 인사 드려. 이번에 우리 공연 스폰서 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여기 수현씨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수현씨, 수현씨?”

순간 정신이 혼미해 환각이 보이ना 싶었다. 한 여자가 대기실 문 밖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여자였다. 품에는 아기가 안겨있었다. 한 동안 보이지 않더니,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모양이다. 수현은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에게로 직진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네. 수현씨도 잘 지내셨죠?”

“그럼요. 저번에 시계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계속 마음에 걸려서……. 정말 새 걸로 안 사드려도 되는 거죠?”

“정말 괜찮아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시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새 시계는 의미 없다고. 아 그리고 오늘 공연 꼭 보고 싶었는데, 아기 때문에 여기서 모니터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애가 하도 울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나저나, 아기가 너무 예쁘다. 아기 이름은 뭐예요?”

“주윤이에요, 박주윤.”

시간의 순행운동이 2040년으로 수현을 데려다준다면, 반드시 그때의 주윤을 찾아가리라. 역행운동의 조건은 너무나도 가혹했기에.